

## 전문대학 RNTC(부사관학군단) 제도에 관한 연구

박 중 현\*

### 요 약

현재 육군 부사관 획득은 임관목표인 6,500명 대비 80% 수준이며, 인력 운영은 88%로 정원 대비 약 9,500명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RNTC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용 하였고, 향후 전국의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RNTC 제도는 2020년부터 편제화되어 정식 운영되고 있지만, 시범적용 기간 중 논쟁이 된 쟁점을 검토 및 보완하지 않았다. 군과 대학의 공통적 목표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 및 확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학과에 편중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병과 획득에 제한되었다. 대학에서도 전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선발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RNTC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A Study on Test Application of RNTC System in College

Jong-Hyun Park\*

### ABSTRACT

Non-commissioned officers reach 80% of the 6,500 recruitment target, and 88% of the workforce is operated, about 9,500 less than the quota. To solve this problem, RNTC was tested and operated for about four years since 2015. And it was run directly by the Army in 2020. However, the Arm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NTCs in college. While maintaining RNTC in universities, measures were needed to cope with the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s, but the army did not address them. The universities tried to achieve two goals: securing students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es, which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 This was mainly because students only from particular departments were selected. And this was not what the army aimed to achieve through RNTC. After analyz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erroneous perception of RNTC to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radicate this problem, there needs to be more effective promotion by the Army, 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terms of RNTC's selec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find and describe the problems of the system itself. If this problem is solved, we will be able to not only satisfy the needs of both the Army and the universities, but also produce good non-commissioned officers through the RNTC system.

**Key words : Non-commissioned Officers, RNTC, securing students, particular departments**

접수일(202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2020년 6월 12일)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 1. 서론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는 1969년 2년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에 처음 도입·운영된 제도이다. 그리고 1973년 유일하게 고등학교인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금오공고')에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완전 폐지되었으나, 2015년 국방개혁의 일부로 전국 6개 전문대학(이하 '대학')에 4년간 시범적용 되었고 2020년부터는 정상운영이 결정되면서 군에 편제화 되었다.

하지만 시범적용 기간 중 도출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군과 대학은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그림 1)에서처럼 '다양한 학과의 후보생을 양성'하여 군은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을 획득하고, 대학은 취업률 상승을 기대하였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微微)한 상태이다.



(그림 1) RNTC 제도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쟁점인 '왜 RNTC 제도가 목적에 충족하지 못 하였는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RNTC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용어상 구분을 위해 교육대학과 금오공고에 도입되었던 RNTC 제도를 '1단계 RNTC 제도'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RNTC 제도를 '2단계 RNTC 제도'라 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본은 육·해·공군 중 동일한 조건에 있는 육군의 3개 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2. RNTC 제도의 도입 배경

### 2.1 RNTC 제도의 개관(概觀)

RNTC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맞춤형 우수 자원'을 획득·확보하기 위해 군과 학교기관(대학·고등학교)이 연계된 학생군사교육 시스템(System)이다. 1969년 교육대학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1973년에는 고등학교인 금오공고에도 설치되었지만 1992년(교육대학)과 1996년(금오공고)에 각각 폐지되었다. 그 후 전문대학에 지금의 RNTC 제도가 2015년부터 재도입 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RNTC 제도의 변천

구분	대상학교	운영기간
1단계 RNTC	교육대학	1969~1992
	금오공고	1973~1996
2단계 RNTC	전문대학	2015년~현재

### 2.2 1단계 RNTC 제도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경제는 급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 직업의 선호도가 낮은 '초등학교 교사의 확보'가 시급하였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 기술전문 인력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두 가지 문제의 해소를 위해 RNTC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교육대학 RNTC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은 화학·철강·기계공업, 건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7%를 훨씬 상회하는 10.5%에 이르렀다. 1971년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청년층의 직업 선호도도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상대적 박봉(薄俸)이었으며 비선호 직종이었기에 교사 확보를 위한 임시 대책으로 「초등교원 양성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 후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62년부터 정식 2년제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직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대학 지원율은 저조하였다. 그리고 현직(現職)교사조차도 이직(移職)을 위한 퇴직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난으로 확대 되었으며, 특히 남교사는 군복무로 인한 공백 때문에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1].

<표 2> 연도별 초등학교원 퇴직 현황[2].

년 도	교원 수	퇴직자 수	비율(%)
1967	89,277	2,620	2.9
1968	92,530	5,400	5.8
1969	96,358	8,300	8.6
1970	101,095	6,791	6.7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대학에 RNTC 제도를 신설하여 남학생들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제공하였다.[3]. 당시 군복무 기간이 33개월임을 고려했을 때 이 조건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문교부(現 교육부)와 국방부는 협의를 통해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을 개정하고, 1969년 6월 16일, 서울교대 등 16개 교육대학에 RNTC를 설치·운영하였다.[4].

다음은 금오공고 RNTC 제도이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경제 고도성장 및 중화학공업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금오공고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산업현장에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일 협력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72년 박정희 前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병기 개발을 강조하면서 군 기술 인력을 획득하는 ‘기술부사관 양성학교’로 성격이 전환되었다.[5].

이렇게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인 금오공업고등학교에도 1973년부터 RNTC 제도가 운영되었다. 교육대학의 RNTC와는 다르게 육군·해군·공군의 현역(現役) 기술부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각 군 하사로 임관하여 5년간 기술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였다.

### 2.3 2단계 RNTC 제도

국방부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과 학군 협약을 통해 전문분야 부사관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군사계열 학과를 신설·추진하였다. 그러나 타 학과로 진로변경(전과, 轉科), 학업포기 등 사유로 중도 이탈자가 과다하였고, 선발시험 합격률이 저조함으로써 획득 인원이 한정되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6].

<표 3> 육군 부사관 임관현황[7].

년도	계	협약 대학	현역 자원	민간 자원	예비역 자원
2011	6,966	1,169 (16.8%)	2,714 (38.9%)	2,943 (42.3%)	140 (2.0%)
2012	6,951	988 (14.8%)	3,361 (48.3%)	2,445 (35.3%)	157 (2.2%)
2013	2,202	1,180 (53.5%)	532 (24.1%)	486 (22.3%)	4 (0.1%)

따라서 국방부는 다양한 병과특기 부사관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현재 전문대학의 군사학과와 병행한 RNTC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효과적 측면에서 대학 전체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로 부사관 인력을 획득한다면 다양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후보생 과정 수수료 시 전원 임관이 보장됨으로 안정적 인력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RNTC 후보생은 임관 전부터 전공 수학(修學)과 군사교육을 통해 군에 필요한 “맞춤식 인재 양성이 가능하며 예산 절감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전국 169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RNTC 운영대학 모집 공고」를 하여 육군 3개 대학, 해군(해병대 포함) 2개 대학, 공군 1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시범적용 하였다.[8].

## 3. RNTC 제도의 성과

### 3.1 1단계 RNTC 제도의 성과

#### 3.1.1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난 해결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RNTC 입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지만, 졸업·수료와 동시에 예비역 하사로 병

적(兵籍)에 편입되어 6년~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례복무를 하였다. 제도의 폐지까지 약 2만 2천여 명의 RNTC 출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특례복무를 하면서 교사의 부족난이 해결되었다.[9].

또한 병역특례라는 옵션(Option)은 그 동안 정원미달이었던 교육대학이 정원을 충족하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하였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RNTC 설치 후 교육대학 지원율도 매년 소폭 상승하였고 1972년 이후에는 평균 지원율이 2.3%수준으로 정원 미달 현상은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육대학 RNTC 설치 전·후 지원율[9].

입시연도	평균 지원율	비 고
1970	1.3:1	8개교 정원미달
1971	1.6:1	3개교 정원미달
1972	2.3:1	정원미달 없음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초등교사 발령대기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등 부족현상이 자연 해소되어 RNTC 출신자들의 병역특례 제도가 무색해져 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조적 수단으로 운영하였던 초등교원 양성소 운영 중지와 동시에 5개 교육대학을 폐교하였고 단계적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1992년을 끝으로 교육대학 RNTC 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10][11].

### 3.1.2 軍 기술인력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

금오공고 RNTC 후보생은 매년 평균 350여명이 각 군의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공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아 복무를 하였다. 일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부 조병창(Arsenal|Armory, 造兵廠)에 보직되기도 하였다.

<표 5> 금오공업고등학교 1기 배정 현황[12].

조병창	ADD	육 군	해 군	공 군
12명	3명	200명	75명	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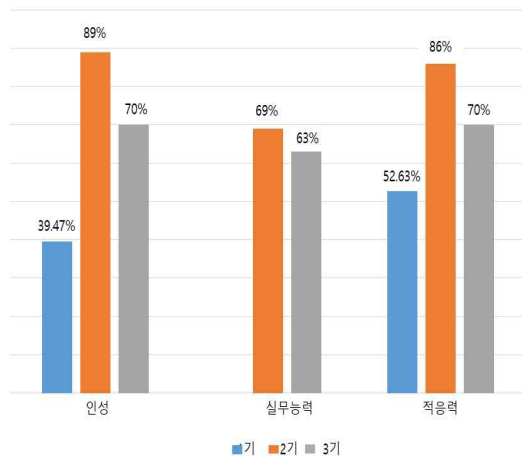
특히, 통신장비, 병기, 방공 등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1977년 육군에서는 이 분야에 금오공고 RNTC 출신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다. 공군의 경우에도 RNTC 출신 기술부사관이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무스탕 항공기의 부품을 제작하여 항공기 활용기간을 연장 시키는 등 능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 교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12].

금오공고 RNTC는 제도의 폐지까지 전군에 7천 700여 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으나, 1990년대 초 ‘국방부의 군 기술요원 양성 정책의 변화’로 1996년 21기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13].

## 3.2 2단계 RNTC 제도의 성과

### 3.2.1 질적으로 우수한 부사관 양성

2020년까지 RNTC 출신 부사관(1기~4기)은 총 336명이며 현재 야전에서 복무 중인 자는 251명(1기~3기)이다. 그 동안 2회에 걸쳐 RNTC 후보생들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2)는 RNTC 임관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 주임원사, 행정보급관이 질적 평가를 한 결과이며 인성·실무능력·적응력에서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1기는 실무능력을 평가하지 않았음)



(그림 2) RNTC 출신 야전부대 질적 평가 결과

민간 부사관 후보생이 18주 동안 군사훈련 위주 양성과정을 거쳐 임관하는 것에 비해 RNTC 후보생은 1년 6개월간 체계적으로 학업과 군사훈련, 훈육을 병행한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질이 우수한 부사관을 양성했다는 점에서는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타 출신 보다 진급, 장기복무 등 비중이 높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양적평가는 제한된다.

### 3.2.2 인력 확보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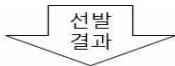
#### 가. 특정학과 위주 지원·선발

대학에서는 입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RNTC를 유치하였다. 따라서 RNTC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과의 후보생들로 구성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군사학과 학생들 위주로 선발되어 유치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은 A대학의 기수별 선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A전문대학 RNTC 후보생 선발 결과

구 분	지원현황		
	계	군사학과	일반학과
1기	107명	67명	40명
2기	92명	67명	25명
3기	97명	73명	24명
4기	73명	56명	17명
5기	87명	69명	18명



구 분	계	군사학과	일반학과
1기	20명	19명(95%)	1명(5%)
2기	33명	27명(82%)	6명(20%)
3기	33명	30명(91%)	3명(9%)
4기	28명	25명(89%)	3명(11%)
5기	40명	37명(93%)	3명(7%)

<표 6>을 보면 A전문대학 RNTC 후보생을 선발

한 결과 모집 정원의 평균 90% 이상이 군사학과 학생들로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 대학 선발결과를 보더라도 그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표 7> B대학 RNTC 후보생 선발 결과

구 분	선발인원	군사학과	일반학과
1기	30명	28명(93%)	2명(7%)
2기	33명	31명(94%)	2명(7%)
3기	33명	33명(100%)	0명(0%)
4기	33명	33명(100%)	0명(0%)
5기	40명	38명(95%)	2명(5%)

※ C대학은 자료제공 및 수집이 제한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대학의 경우에도 일반학과 선발 비율은 평균 10% 미만이며 2년 동안 일반학과 학생은 선발되지 않았다.

#### 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병과특기 분류

군사학과 위주 선발이 된 결과가 결국은 '다양한 병과특기의 안정적 획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군의 「학군부사관 후보생 병과세부특기 분류기준」에는 병과분류 절차는 학군장교(ROTC) 후보생 병과분류 기준을 준용하고 분류 우선순위는 ① 전공 ② 자격증 ③ 군사훈련 성적이라고 규정화하였다.[14].

RNTC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 취지가 전공을 고려하여 다양한 병과특기를 부여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소수 선발된 일반학과 학생들의 경우 전공과 무관한 특기가 부여되고 있다.

<표 8> RNTC 후보생 병과 분류 결과

전공학과	임관	적소 병과특기	병과특기 분류 결과
경찰경호	3명	헌병	기갑(3)
과학수사	3명	헌병	로켓포병(2) 방공(1)
소방안전	1명	화생방	재정
스포츠	1명	전투병과, 헌병	기갑
식품조리	1명	보급	재정

<표 8>은 A대학에서 4기까지 104명이 임관했으며 그중에서 일반학과 출신 후보생 9명에 대한 병과특기 분류 결과는 나타난 것이며 전공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 RNTC 도입 배경과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며 병과세부특기 분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공과 연계해서 병과특기를 부여받고 군 복무기간 동안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 진출에 유리하고자 RNTC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병과특기 분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일반학과 학생들의 지원율은 갈수록 저조할 것이라 자명한다.

### 3.3 소결론

RNTC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필요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1단계 RNTC 제도는 군과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 확보하여 충분한 인력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2단계 RNTC제도에서는 군과 대학이 요구하는 목적에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에 제한적이다. (그림 3)은 1단계 및 2단계 RNTC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성과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RNTC 제도의 성과

따라서 2단계 RNTC 제도는 (그림 3)과 같이 다양성을 갖춘 병과특기 부사관 획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선발시기와 교육기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4. RNTC 제도의 개선방향

### 4.1 대상을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

RNTC 제도는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를 모방하여 학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ROTC 설치대학의 경우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지원하여 양성되고 있는 반면 RNTC의 경우는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이 부족하였다. 현재 육군에서는 설명회, 홍보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Promotional Content)를 통해 모집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RNTC 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며 대학에서는 입시홍보설명회 및 대학홈페이지 그리고 교육청을 통한 간접홍보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를 조사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모바일(Mobile) 이용률은 94.7%이며 하루 7시간을 사용 한다'고 한다.[15].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 따라 SNS를 활용한 홍보영상, 웹툰(Webtoon) 등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점진적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 4.2 선발시기 및 양성교육기간 재검토

4년제 대학 ROTC의 경우 2학년 1학기 때 선발함으로 입학 후 1년간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하지만 전문대학 RNTC의 경우 1학년 1학기 신입생 때 선발함으로 지원율이 낮고 이는 특정학과에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선발 후 1년 6개월(3개 학기)동안 양성교육 과정을 거친다. 4년제 대학 ROTC의 경우 후보생 양성교육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수학기간이 1/2인 전문대학 RNTC는 1년 6개월의 양성교육기간은 후보생들에게는 전공과목의 학습여건 보장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RNTC도 선발기간을 1학년 2학기로 조정하고 양성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 1년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한 진로결정과 준비 시간 그리고 전공과목 수학 여건이 보장될 것이다.

### 4.3 특정 병과특기 선발인원 일정비율 의무화

현재 선발정원은 육군에서 소대학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ROTC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선발정원을 결정하고 학군단별로 할당한다. 이를 참고하여 RNTC도 선발정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즉, 대학별 남·여 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남·여 후보생의 정원을 정하거나, 일반학과 학생의 선발비율을 고정화 한다면 학과별 균등하게 후보생들이 선발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병과특기 소요를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정원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병과특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며 조건을 갖춘 학생들끼리 자율경쟁이 되어 우수한 자원이 선발될 것이다. 2017년 국방부와 2018년 육군에서 이 두 가지 방안이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리고 육군에서는 “희망 병과특기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제한되며 가급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과특기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5. 결론

2020년까지 육군은 336명의 RNTC 출신 부사관을 양성하였다. 연평균 100명이 임관하며 부사관 양성인원(5,000 여명)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야전에서 타 출신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7년 국방부는 ‘부사관학군단 시범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결과’에서 부사관학군단은 「부사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자 우대정책」에 부합되며 후보생의 자질, 수요자(軍)의 필요성, 대학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KIDA 김영곤 박사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사관 직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량획득 후 대량손실의 부사관 인력구조를 이제는 향아리형으로 전환하여 소수인원을 선발, 장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해 RNTC 제도의 점진적 확대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학 부사관학군단이 시범적용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군과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인력획득’을 위해 특정학과에 편중된 후보생

선발이 되지 않도록 선발시기 및 양성 교육기간의 조정, 병과특기 분류문제 등은 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속성 있게 지속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본문에서 제시한 과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검토·보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박영배, “초등교원 양성소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p. 68-69, 1972.
- [2] 김봉수,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p. 261, 1978.
- [3] 유태욱, “한국 초등교원 양성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논총, pp. 17-18, 1980.
- [4] 임성빈, “육군의 우수한 부사관 인력획득을 위한 「RNTC」 제도 적용방안 연구”, 군사논단 제75호, p. 219, 2013.
- [5] 지민우,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3-4, 2013.
- [6] 정재극, “병영실습 훈련이 부사관과(副士官科) 학생들의 임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보안학회, p. 75, 2014.
- [7] 공현태, “우수부사관 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건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6, 2014.
- [8]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부사관학군단 신설 추진방안(제13-3회 정책회의 안건)”, 2013.
- [9] 중앙일보, “전망 흐린 우수 초등교사 확보(교육대학 지원 겨우 정원미달 면할 정도)”, 1972. 03. 02.
- [10] 김세환, “병역의무의 특례 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7-68, 1991.
- [11] 현재 1990. 10. 8. 89헌마89, 教育公務員法 第11條 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
- [12] 임소정,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과 엘리트 기능인력의 활용, 1973-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62, 2015
- [13] 이공래, 고상원, 조황희, 심상완, “공업계 고등학

교 기술교육 진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81-89, 1999.

- [14] 인사사령부, 학군부사관 후보생 병과세부특기 분류기준, 2016. 10. 7
- [15] 김병호,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 언론진흥재단, p. 22, 2016.

---

**[ 저 자 소 개 ]**

---



박 중 현 (Jong-hyun Park)

2003년 2월 서경대학교 문학사  
2009년 2월 건양대학교 군사학 석사  
2018년~현재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군사학 박사과정  
2017년~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  
양교직과 초빙조교수

email : ktma3431@naver.com